

# 숲 정 이

연중 제 33주일(평신도주일)

제 1독서 : 다니 12, 1-3

제 2독서 : 미르 10, 11-14, 18

특 음 : 마르 13, 24-32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마르 13, 32a)

## 강 련

## 소 리

### 두루몽실

### 슈퍼스타

황의욱 회장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얼마 전 특정요리를 잘 한다는 음식점엘 들렀더니 재료가 품귀되어 요리를 해 줄 수 없다며 정중하게 사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생각까지 하며 되돌아 온 예가 있었습니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수입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온갖 것을 다 둔갑시켜 팔아 먹는 세상에, 적당하게 요리하여 내놓을 수도 있으면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일텐데도 고마운 생각은 웬일일까. 혼란의 극치를 보는 요즘은 이렇게 된 원인들을 곰곰히 살펴보면 일제 식민시대를 겪고 오랜 군사독재 문화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란 적당주의가 부정 부패를 잉태하고 또 악에서 악을 낳은 두루몽실한 세태로까지 흘러왔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지성을 길러 낸다는 대학 구내에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한 불행한 사실들을 보면서, 되돌아보면 대다수 교수들의 무관심 속에서 적당하게 교육을 시킨 탓도 있다고 봅니다. 저명인사의 자제이니까 봐주어야 하고, 이 공사는 뇌물을 받았으니까, 학교 후배이니까...

국가반란의 대역죄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라하여 두루몽실하게 넘기면서도 담배 한 갑 받아 피었다 하여 뇌물 수수죄로 감옥에 넣으면서 꼭 부연하는 말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 ‘악도 남의 일이면 방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악의 현장에서 적당히 돌아가 버리는 보신주의, 여기에도 지식인, 언론, 종교인 모두가 양비론적 사고로 양다리 걸치면서 어느 한 쪽도 기본 상하지 않게 적당히 피해 가며 살아가는 방관자 세상.

우리는 하루빨리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는 두루몽실한 태도, 합리적 사고보다 비합리적 사고가 더 우세한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느님을 모시고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예’ 해야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해야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여 현세 속에서 복음을 침투시키는 역할이 평신도 사명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하느님과 수직적 관계에만 집착하여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웃과 사회와는 아주 무관한 것처럼 소홀함을 봅니다. 수도승처럼 기도만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웠던 70~80년대 감옥에서 거리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했던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 뼈아픈 자성 속에서 변화되도록 노력합니다.

「대통령제의 현주소」라는 책을 쓴 ‘토마스 크로닌’은 “미국 국민들은 4년마다 신선한 슈퍼스타 대통령을 주문한다. 조지 워싱턴의 판단력에, 제퍼슨의 총명, 링컨의 천재, 루즈벨트의 정치적 지혜, 게다가 존 에프 케네디의 상큼한 젊음까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슈퍼스타가 어디 있던 말인가?”

직장여성들이 결혼 적령기를 놓치는 이유의 하나도, 많은 직장동료는 물론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모두 모아 이상형을 만들고 그런 사람을 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위로받기만을 바라면서 산다. 주어야 할 부분을 깡그리 몽개버리고 받을 욕심만 갖고 산다.

최소한의 슈퍼스타를 키우지도 못했고 키울 능력도 없고 그나마 키우려는 움직임만 보이면 거대한 힘에 의해 좌절된다. 반란군 대장이 득세하자 그 사람을 위해 헌신·봉사·굴복·맹종의 나날을 보냈고 그의 춤에 장단과 추임새까지 덧붙였다.

그 사람이 곧 슈퍼스타인 양 떠받들고 최고의 신랑감인 양 우쭐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난일색이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장본인은 어쩐가?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주어야 할 때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오리발은 내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전혀 개전의 점이 보이지 않는다. 임기 동안의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 지는 모르지만 범치 국가의 체면을 망가뜨린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어차피 슈퍼스타는 구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 받들 의무는 우리에게 있음을 음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 숲 정 이 신책



#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란? (평협)

사무국장 김응택(베드로)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회 창립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퍼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 부른다. <중략> 평신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이름으로 완수해야 한다.” - 평신도 교령 중에서 -

오늘은 제 27 회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자신이 평신도 이면서도 평신도란 표현을 잘 모르는 경우를 더러 봅니다. 교우, 신자, 교형 자매 등의 용어만 자주 사용해 온 버릇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은 평신도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주의 기도문을 평신도는 읽거나 외우지 못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엔 신부님만 낭송하시던 주의 기도문을 평신도가 읽고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 선포와 함께 인간성화에 힘쓰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만 사도직을 부여하여 복음을 선포 하도록 하셨으나 2천년이 지난 지금은 세례를 받은 평신도는 모두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제 2 차 공의회 이후 평신도에게도 사도로 불리움을 받으면서 사회 속에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창립되고 그 2년 후에 전주교구에도 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본회는 교구내 평신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각 본당을 대표하고 계신 사목회장과 교구장이 승인한 신심단체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총재는 교구장이시고 지도신부와 임원으로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감사와 사무국에 기획부, 청소년부, 연구부, 사회복지부, 전례부, 교육부, 여성부, 선교부, 홍보부 등이 조직되어 있고 연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회칙에 나타나 있는 목적을 보면 ‘교회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교구 차원의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의 성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는

1. 교구 평신도를 대표하는 일
2.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3. 회원 단체 사이의 조정과 회원 단체에 대한 지원
4. 전국 협의회와 다른 교구 평협과의 유대 강화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6. 그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령에서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정기총회의 결의로 집행해왔습니다.

본당간 자매결연을 통한 사랑 나누기,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선교수기 공모를 통한 신심양양, 날로 오염되어가는 환경을 보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공해 사진전, 폐 수은 건전지 회수, 가정 성화를 위한 가정기도운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목회장단 연수회, 본당 부장단 연수회, 평신도 교육 기회 확대, 평신도간의 국제 교류를 통한 신앙체합, 각 신심 단체활동 후원과 정보교환 등 사회적 있는 문제들을 찾아 각 본당 제단체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살고 있는 평신도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현세 질서 속에 뛰어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성화, 환경보호, 청소년 문제, 도덕회복 운동, 생명보호 운동, 농촌살리기, 사회정의실현 문제, 무수히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해야 하며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평신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13만 신자 모두가 구성원이며 주인인 전주교구 평협. 이제 어느덧 청년 평협으로 자라나 전국 각 교구 평협 중에서도 전주교구는 평신도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평협으로 다른 교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지에서 그리스도 정신에 따른 합당한 활동으로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대 아 광고**  
 간판·네온사인·프랑카드  
 아취·선전탑·조감도  
 이현상(오 한)  
 조정화(헬레나)  
 전주교구 정문 앞  
 ☎ 82-2547  
 호출 012-683-0703

**인기 주유소**  
 가정에 탱크노리로 석유, 경유,  
 신속배달합니다.  
 ※ 교우 기사 구합니다.  
 안 인기(예로니모)  
 김순선(수산나)  
 ☎ 211-6114, 212-0176

피아노 현금가 무이자 할부판매  
**삼익피아노 코아특약점**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및 각종 악기  
 코아백화점 3층  
 ☎ 86-1181, 80-1309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뇨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중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교리상식 12

죽은 이들을 기억하자!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연옥에서 정화중인 연령(연옥 영혼)의 영혼을 위해 기도와 보속과 선행을 하는 달인 위령 성월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위령 성월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 특히 연령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공로를 쌓을 수 없고 우리 산 자만이 그들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천국에 들어 성인이 되면 우리들을 위하여 빌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다. 통공이란 쌓은 공로를 서로 주고 받는다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천상과 세속, 그리고 연옥교회는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도움을 주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행하는 기도와 자선·선행·극기, 그리고 미사 참여는 죽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공로가 된다. 특히 미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할 수 있기에 미사 봉헌은 연령들을 위한 가장 큰 공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날마다 한 번씩 연령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윤택한다. 위령의 날이나 교구장이 허락하는 날 성당을 참배하고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며 교황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대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와 성인 성녀들의 많은 공로에 힘 입어 어떤 기회와 조건 하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에게 죄벌(죄에 따르는 벌)을 용서받게 하는 것이다.

11월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위하는 달이다. 11월의 첫날인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고 둘째날인 2일은 '위령의 날'이며 11월은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기 때문이다.

죽음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이별시키지만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을 영원토록 이루고 있다.

요십이 (1107) 김병오



주교관 직원 구함

1. 지원자격: 영세한지 3년 이상된 30세미만과 50세미만 여성 2.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나. 세례증명서 다. 본당신부추천서 각 1통
3. 서류접수마감: 94. 11. 19(토)
4. 서류접수 및 문의: 전주교구청 사무처(85-0041)
5. 면접일자는 개별통보함.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까지, 12월배발)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직원 모집

더불어 함께 일하실 남자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남자 1명  
2. 지원자격: 64년 이후 출생자 고졸 이상 학력 및 병역필, 면제자  
3. 제출서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접수기간: 4월19일(토)  
우전(천)신용협동조합 ☎225-4626

교구 소식

\* 성가정 성공사례, 신앙체험수기, 선교체험 수기 공모: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마감-11월21일, 주최-전주교구 평협, 문의 (0652) 85-2935

1. 축! 견진: 11월20일(일) 오전10시30분 숲정이 성당
  2. 사제평의회: 11월15일(화) 오전10시 교구청
  3. 재무평의회: 11월18일(금) 오전10시 교구청
  4.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11월20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85-0041(홍보국) \* 초보자 가능함
  5. 신학생 부모 모임: 11월20일(일)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6. M.E 52차 주말: 11월18일~20일 천호 피정의 집
- [심소모임] 사람의씨튼수녀회: 11월19일 오후4시30분 용머리 성당 수녀원 81-0441  
전교가르멜수녀회: 11월20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74-926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쓰레기는 구분하여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태우는 것과 태울 수 없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음식찌꺼기 등을 철저히 분리하여 버리도록 합시다.

조주장 한의원

비만크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폐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 주 장(이나시오) 차 숙(글라라)

코야전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성지순례 모집 안내

- 일시: 95년 1월 5일~17일(12박13일)
- 장소: 이집트/룩소/이스라엘/로마/바티칸/스위스/볼란서
- 회비: 2,500,000원  
(신부님 모시고 알차고 보람된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전일관광 ☎(0652) 88-6666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33주일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 1. 반미사 안내: 남노2반-17일 후 3시
- 2. 빈첸시오 회원의 날: 오늘 장엄미사 후, 지하 교리실  
\* 일반, 명예 회원들께서는 참석바람.
- 3. 세실리아회 정기총회: 18일 저녁미사 후
- 4.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5일 어머니미사 후  
③재속형제회-19일 후 2시  
④대건회-20일 장엄미사 후
- 5. 교무금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교무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6. 본당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당 내 모든 비품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각 분과 부장님들께서는 95년도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7. 각 분과 예정님들께서는 95년도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8. 금주 청소: 중노1, 2반  
차주 청소: 중노3, 4반

□ 지난주 봉헌금: 994,940원 □ 교무금: 1,449,000원

- 오늘은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 1. 어머니 성서 1일 피정: 일시-11월16일(수)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서학동 성당  
준비물-신앙성서  
회비-3천원  
\* 감사와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 같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 2. 프란치스코 3회: 11월13일(오늘) 오후 2시
- 3. 성모회: 11월2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4. 95년도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분과장은 사무실에 제출바람.
- 5.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저녁 6시, 일요일 저녁 6시, 평일 저녁 6시, 다음주일부터 실시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축하! 혼인: 11월13일(일) 12시, 장소-서학동 성당  
신랑-김종필, 신부-전영순(소니아)  
\* 두 분의 앞날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금주 전례: 해설-전병구(비오)  
독서①권희조(벤자민) ②한남래(소니아)  
차주 전례: 해설-이동재(베네딕도)  
독서①김인수(그레고리오)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16,700원 □ 교무금: 1,629,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1.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음
- 2.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대건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5. 부녀회: 17일(목) 오전 10시
- 6. 성우회: 2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7. 초등부 은총시장: 11월20일(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열립니다.  
이 날은 어린이들이 그 동안 모은 은총표를 선물로 교환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물품(인형, 문구류, 책 등)을 기증 바랍니다.  
뜻있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초등부 교사 회합실로 접수바랍니다.
- 8. 축하! 결혼: 20일 12시 신랑-유태희(대건 안드레아)  
신부-최희정
- 9. 성당 청소: 의덕의 자율, 다윗의 탑Pr
- 10. 금주의 전례: 해설-오교성
- 11. 차주의 전례: 해설-유두석
- 주일 봉헌금: 435,870원 □ 교무금: 88,200원
- 감사헌금: 40,000원

- 11월은 위령성월(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 1. 금주: ①평신도 주일 2차헌금(특별강론)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 2. 성모회: 15일(화) 오전 11시
- 3. 베에따회: 16일(수) 오전 11시
- 4. 재속 글라라 형제회: 17일(목) 오전 9시
- 5. 구역반장 회의: 17일(목) 오전 11시
- 6. 본당 신부님 사목방문: 구역반 회장님 협력바랍니다.
- 7. 글로리아 성가대 간부 개편: 단장-범인철(안드레아)  
부단장-이상길(다두) 총무-장정희(베네라다)
- 8. 차주: ①바나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연합회-후 8시
- 9. 감사합니다: 시선헌금 50만원(의덕)
- 지난주 봉헌금: 1,857,43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우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장삼근

- 1.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 2. 모임: ①안나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9일(토) 저녁 3. 나운동 성당 돕기 2차헌금: 다음주일
- 4. 11월 구역 모임: 16일(수) 하신, 상신, 원신, 석장, 신흥, 의암
- 5. 구역장 및 협조자 임명: 서당-강순옥(논나), 김종석(야고버), 내정-김남순(마리아), 강덕용(베르나르도), 풍기-하태중(바오로), 최상운(마태오), 백암-최상욱(바르톨로메오), 이육동(가브리엘), 어두-황옥섭(히랄리도), 양주태(라우렌시오), 수월-백귀례(테레사), 박귀철(바오로), 마치-이정례(테레사), 정광철(하삼바오로), 하신-전선자(글라라), 양주태(라우렌시오), 상신-장덕순(로사), 강덕용(베르나르도), 원신-주영혜(크리스티나), 이육동(가브리엘), 새장-김월주(모니카), 최상운(마태오), 신흥-이순자(마리아), 박귀철(바오로) 의암-강수재(프란체스카), 정광철(하삼 바오로)
- 6. 성령 세미나: 21일(월)~26일(토) 매일 저녁 7시~10시
- 7. 불우이웃돕기 성미 봉헌: 뜻있는 모든 분들
- 8. 금주 청소: 모든 성인의 모후Pr
- 9. 차주 청소: 성실하신 동정녀Pr
- 10. 금주 전례: 해설-유민순, 독서①한동욱 ②송정자  
봉헌-이수복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최경림 ②이순자  
봉헌-최경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16,220원 □ 교무금: 675,000원

- 자신의 성화된 생활, 사랑의 생활로 평신도 사도직 직분을 수행합니다. 평화동 활동 후원회 날
- 1. 평신도 주일 강론: 강상근(미카엘) 사목회장 수고에 감사.
- 2. 김로마나 수녀님 영명축일: 18일 저녁 7시30분 미사에 함께
- 3. 부녀회원님들 여성단체 임원피정: 16일 전 9시30분 쉐타 3층
- 4. 세상을 떠난 L.M단원 연미사: 16일 낮 11시 저녁 7시30분
- 5. M.E 52차 주말 감습회: 18~20일 천호 피정의 집 김윤곤, 유금자 부부, 이은노, 최명자 부부
- 6. 교리교사 정기총회: 19일 초등부-5시, 중고등부-저녁 7시
- 7. 중·고 학생회 정기총회: 20일 전 9시 미사 후, 교리실
- 8. 페유 수집의 날: 15일 각 구역별로 한 통 이상 모으기
- 9. 성소 후원의 날: 20일, 오빈-매 미사 후, 회비-공식미사 후
- 10. 가정방문: 8-1, 2, 3반, 오전 9시부터
- 11. 회의: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16일 어머니미사 후, 평화기사회-17일 저녁 9시, 임마누엘-다음주 삼천동 성당, 공식미사 후, 한빛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 12. 전입을 환영합니다: 정명순(헤레나) 4-4반 ☎86-6973, 유야산(임마누엘) 4-4반 ☎83-1696 김순덕(모니카) 13-3반 ☎223-2773, 김춘화(마리아) 9-5반 ☎86-3166, 이예은(무갈다) 2-2반 ☎86-7477, 코오롱APT-이윤승(프란치스코) 7동 1704호 ☎223-5020, 김평수(베드로) 5동 502호, 박순자(헤레나) 9동 1001호 ☎221-4987

□ 지난주 봉헌금: 1,114,050원 □ 교무금: 1,210,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전동 교육관, 요한복음 강의